"21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 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의 사망으로 혼자가 된 이도훈(가명)님의 이야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자신과 동생을 버리고 간 어머니가 윈망스러웠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의 기쁨도 잠시, 병상에 누워 있던 아버지께서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 만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은 친권자인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당시 성인이었던 이도훈님은 끝내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이도훈님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틈없이 어른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혼자 세상과 맞서 살아가고 있는 이도훈님이 주위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으로 다친 마음을 위로받고 지역 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도훈님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장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